

시장

Christine C. Quinn (D)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틴 퀸입니다. 먼저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왜 제가 다음 뉴욕 시장이 되기 위해 출마했는지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는 노동조합 소속 전기공, 제 어머니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두 분은 생계를 이끌어 가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제 가족과 같은 너무나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으로 당선된다면 뉴욕시를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도시로 지키는 것을 저의 첫 번째 소임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다섯 개 보로 모두에 제조업, 기술 그리고 친환경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뉴욕시 모든 지역에 시험 중심적인 교육보다는, 대학진학이나 취업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는 양질의 공립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뉴욕시 역사상 가장 방대한 중산층을 위한 주택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지역사회 - 경찰 관계를 개선하면서도 뉴욕시가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로 남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범죄에 맞서는 데 있어 뒷걸음질칠 수 없습니다. 뉴욕시를 위한 제 모든 아이디어와 총체적인 비전을 알기 원하신다면 제 Ideas App 를 다운로드하시거나 제 웹사이트 quinnfornewyork.com 을 방문하십시오. 뉴요커들은 중산층을 위해 일하겠노라고 약속만 하는 시장이 아니라, 성과를 실제 가져왔던 경력을 가진 시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시의회 의장으로서 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8 번을 거듭해 제시간에 균형예산안을 통과시켜 교사들을 보호하고 소방서와 도서관 서비스를 지켰으며, 프리-K 프로그램 정원을 만 명 늘렸고, 소규모 사업체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도왔고, 획기적인 클리닉 서비스 확장 법안으로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지켰고, 임차인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으며, 생활임금 법안 통과시켜 열심히 일하는 뉴요커들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당선 된다면 이런 일들을 계속하겠습니다. 뉴욕시는 중산층의 손으로 지어졌고, 저는 매일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